◈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 행 인: 이종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설립 8주년기념

이번 주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교회설립 8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시편 119편을 암송 범위로 이번 주에 시작된다.

예선은 전체 부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11월 5일과 7일 각각 치러진다.

11월 5일(금) 오후 7시부터 실시되는 예선은 장년부와 소망부 그리고 각부 교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개조로 나눠 실시된다. 장소는 교회당 1 · 3 · 4층.

11월 7일(주일)에 있을 예선은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되며 각 부서별로 1 - 2명씩 선발하게 된다.

한편 유아부와 유치부 학생은 특별조로 편성되어 외운 분량만큼 암송하면 된다.

예선의 심사위원은 각 부서별로 선정토록 하며 심사 기준은 정확도와 태도 그리고 반응도에 각각 50점, 30점, 20점의 가중치를 두게 된다.

본선 및 결선은 11월 12일(금)에 실시된다.

결선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씩을 선발하며 완송자 전원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 예선 일시 · 장소 · 선발인원

구분	일시	장소	선발인원
장년 · 교사	11월 5일(금) 오후 7시	1 · 3 · 4층 예배실	*장년은 3개조(추첨으로 편성)중 조별 2명씩(6명)
교회학교 학생	11월 7일(주일) 각 부서 집회시간	교회학교 집회장소	*교회학교 학생은 각 부서별로 1 - 2명씩(총 12명)

11월 행사게시판

일자	행사
5, 7일	성경암송대회(예선)
7일	찬양대 헌신예배
8일	목회자신학세미나 16학기 종강
12일	성경암송대회(본선 및 결선)
14일	성경암송대회 시상 및 시범
15 - 18일	제6학기 성경대학 종강
15 - 27일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21일	추수감사찬양예배
28일	추수감사절(성찬식) 교회설립 제 8주년 기념일 장로 · 권사 · 집사 임직식 사명자대회 승전감사의 날
26일	사명자대회 승전보고

종교개혁 482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어제와 오늘

초대 교회의 순수한 신앙 고백과 헌신적인 삶이 중세를 거치는 동안 퇴색되었다. 이에 대해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의 횃불을 올렸다. 오늘은 종교개혁 482주년이 된다.

당시 교회의 권력과 금력의 비대화로 인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필설로 형언키 어려울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생긴 수다한 아픔과 비리는 교회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받고 있는 무서운 도전과 우리의 응전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오늘의 교회가 받는 도전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 · 평등 · 박애를 내걸고 일어났으나 당시 왕권과 야합했던 교회를 향해 도전했다. 진리의 터전인 교회가 사변적 신학에 치우쳐 무력한 교리 논쟁만 일삼을 때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1848년 공산당선언은 또 하나의 도전이 된다.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공산당의 도전을 모면할 수 없다.

19세기 니체는 교회의 잘못을 보며 사신사상으로 교회에 도전했다.

1976년의 방콕선언은 기독교의 유일사상을 시대적 착오라며 탈기독교를 주장했다.

1990년대에 평화는 도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나 기독교는 각종 분쟁과 환경 문제 등에 근본적인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생각하며 교회를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응전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재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과 사도 정신을 재발견하여 뜨거운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강조되는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을 정립하여 화해와 일치와 협력의 본을 보이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면

이사야 29장 9 -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사 29:9 - 14)

이종윤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가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눈을 소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술 취한 자처럼 혼미케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연고입니다.

1. 불신앙을 즐기는 자는 갑자기 놀랄 것이고 소경처럼 될 것이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의심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면 갑자기 닥칠 환난에 놀랄 것이고 불신앙의 생활과 생각을 즐기면 소경이 될 것입니다.

불신앙은 분별력과 식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므로 우리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요 1:9).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스스로 소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여 피하므로 결국 영적 판단력과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신다고 하셨습니다(롬 1:28).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오히려 죄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즐기려고 합니다.

잠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잠은 죽음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시 13:3)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들을 덮으셨음이라"(10절).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의 선배나 혹은 목사님들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 빨리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진 자와 같게 됩니다.

2. 하나님을 떠난 자와 외식자는 성경이 봉한 책이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봉한 책의 말씀처럼 무용지물이 되어 술 취한 자처럼 혼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은 독주를 마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9절).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과 관계없는 외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됩니다. 외식이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행위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가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므로 아첨하는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것을 바쳐야 마음도 하나님께 가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보배는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구체적 생활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 15:22), "여호와의 규례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시 19:10),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시 119:127),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소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키려는 잘못된 신학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좇아가므로 실패했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외식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가장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이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앗수르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저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틀리지는 않으나 후자의 해석이 더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의 죄와 외식하는 죄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영적 소경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봉해져서 술 취한 자처럼 혼란에 빠지고 마침내는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고 외식의 길에서 돌이켜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나의 누님

신용식(집사)

우리 가정은 불신앙 속에서 살아오면서 걱정과 근심, 고생 속에 살아왔었다. 우리 어머니의 질병은 가정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했고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을 소개 받게 되었다. 당시 어머니는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 한쪽 팔을 잘 못쓰셨다. 그러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셨던 것이다.

어머니는 교회 등록 하시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 매일같이 교회 갔다 집에 오시면 하나님 자랑을 하시곤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한쪽 팔을 못쓰시던 어머니가 팔을 들어 올리시면서 기뻐 어쩔줄 몰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자식들에게 간증하시면서 같이 교회 갈 것을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다.

당시 출가해 있던 누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이 오셔서 심방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건너방에 가 계시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귀찮아 하셨다.

어머니와 나는 누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러던 두 달 후 어느 날 누님이 오셔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셨다. 앞집 사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누님네 가정을 전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음을 알았다.

그 이후 누님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셨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셨다. 예수님을 알면서 누님의 신앙은 한달이 다르게 달라져 갔다.

누님은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의 사명자가 되셨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 앉아서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모든 일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짜증이 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었다.

누님의 생활은 어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기도 생활을 보여 주셨다. 하루 4-5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잠이 많으시던 누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이후 새벽 기도를 거르시는 날이 없었다.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기도를 하신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다. 누님과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님의 기도는 우리 온 식구들을 울리신다. 덩달아 나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누님은 작정기도를 시작하셨다. 40일 동안 철야기도를 하며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사업을 해오면서 사업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

누님이 순간마다 한 마디씩 하시는 신앙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 자신을 위하여는 초라한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몸과 마음과 물질도 다 헌신하시는 것을 가까이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셨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신 분

이운진(집사)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김장 로님은 약간은 초라할 만큼 두어 벌의 양복으로 검소함이 넘치시던, 어깨가 약간 좁은 그런 분이셨다. 그 교회를 우리가 옮기고 난 후 명절에 인사라도 해야 겠다고 마음 먹으면 꽤 근수나가는 고기를 손수 사서 먼저 심방을 오시곤 하셨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의를 표하고자 댁을 방문했을 때 그 분이 지하 단칸방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은 사진 한장과 성경 앞에서 우리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났다. 맑았고 당당하면서도 은근함이 있었다. 세상 얘기에 몰입하다가도 문득 그분을 생각하면 금새 그분의 향이 나로 부끄럽게 만든다. 오실 때마다 기도 중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막연한 축복의 구절을 말씀하시기보다는 oo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며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시던 김 장로님, 그분의 맑은 마음과 향기를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데 세상적 겉치레와 누추한 옷들이 내게 걸쳐져 있음을 발견하며 다시 한 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김장로님, Aroma Therapy(향기 요법) 아시죠? 저는 장로님이 남기신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

이은자(9교구)

먼저 서울교회에 출석한 남편을 따라 2년여 만에 우리 가족이 몸된 서울교회에 등록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온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기쁨과 낯선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솔직히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모두 서울교회로 옮기기로 한 5월 마지막 주일날 아침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가 않았다. 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며 서울교회로 향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새가족부에서 8주간 교육을 받았다.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 가족은 빨리 적응을 할 수 가 있었다.

모두들 너무나 열심히 신앙 생활하시는 모습에 나 자신의 나태한 모습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1부 예배에서 안내위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주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리라 다짐을 해 본다.

2000년 당회 · 제직회 조직 발표

내년도 당회 및 제직회 조직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우리교회 12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4개 기관의 기관장이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는 조직(서기, 회계, 위원)을 완료하여 11월 둘째 주일까지 당회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2000년도 각 부서에서 수고할 일꾼들은 12월 첫 주부터 셋째주까지 임명, 발표될 예정이다.

▶위원회

당회서기 서문석

예배위원장	성준경	찬양위원장	이영기
교육위원장	김태기	교구위원장	김영준
전도위원장	최종시	선교위원장	홍정호
구제위원장	김광신	관리위원장	박두호
재정위원장	박철훈	건축위원장	오정수
동산위원장	윤봉준	인사위원장	노문환

▶기관

출판국	김광신	장학회	김상철
교회갱신연	하영수	비전 2020	이번생

▶제직회

서기 김세재 부서기 이복규 김재중
회계 박철훈
감사 홍정호 이웅선 신용식

박종상 선교사 곧 귀국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 파키스탄에 파송됐던 박종상 선교사가 3년 임기를 마치고 12월초 귀국케 된다.

박 선교사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 파키스탄에 체류하면서 비자 문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의 쿠데타 이후 현지 정부가 강경책을 유지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파키스탄에 체류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일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해왔다.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2000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 면접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서리 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교육과 면접 각 3차 중 1회 참석하면 된다. 교육과 면접을 마친 신임 서리집사는 12월 5일(주일) I · II · III부 예배시 임명을 받게 된다.

* 교육 1차: 10일(수) I부 예배 후
2차: 10일(수) II부 예배 후
3차: 14일(주일) 찬양예배 후

* 면접 1차: 17일(수) I부 예배 후
2차: 17일(수) II부 예배 후
2차: 20일(토) 오후 7시

이번주 사명자대회 주요행사

▶50일 연속기도회: 2층 예배실

▶금요기도회(5일)
· 주력교구 및 부서: 5 · 6교구, 바울선교회, 권사회, 호산나찬양대

▶70인전도대 훈련: 6일(토) 오후 2 - 3시

▶전도교육
· 11월 3일(수) I · II부 예배 후 다락방별로
· 참가 범위: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

▶노방전도
· 전도회별 노방전도: 31일(주일) II부예배 후
담당부서: 요한선교회, 마리아전도회, 모세선교회, 한나전도회
· 병원전도(대학부, 청년부): 주간에 계속
· 등산전도: 6일(토) 오후 3시 청계산

▶태신자전도: 문서전도, 심방전도, 일대일 책임전도 결실

▶다락방 배가운동: 가족 · 이웃 · 친지 초청 전도, 한가족 한교회 운동

▶잃은 양 찾기 운동: 잃은 양 실태 파악 · 보고 및 다락방별 합심기도, 심방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월 4일(목) 연세 조찬 기도회를 인도한다.
* 이남호 장로(12교구)는 23일(토) (주)유신건업 회장으로 취임했다.
* 박이정 성도(청년부)는 중앙일보 독서감상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번 주 식사는 왕경래 장로 · 김정회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스데반회는 11월 1일(월) 새 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23일(토) 개최된 청소년을 위한 "중 · 고딩 지저스 월드". 복음 선포와 찬양 잔치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영혼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더 풍성한 다음 잔치를 기약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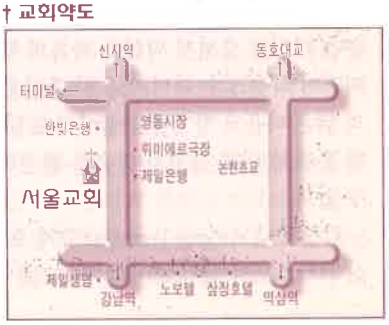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명자대회를 위해
2. 오직 말씀 · 은혜 ·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위해
2. 교회설립기념 전교인 암송대회를 위해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회약도